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11, pp. 180-188,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1.180

판옵티콘 메커니즘으로 살펴 본 제퍼슨 사회: 『팔월의 빛』을 중심으로

정현숙
계명대학교 타불라 라사 칼리지교수

Jefferson Society as Panopticon Mechanism: Focused on *Light in August*

Hyunsook Jeong
Professor, Tabula Rasa College,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남부 신화에 대한 재고라는 측면에서 그 신화의 실체 혹은 신화라는 허상에 대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타자에 대한 폭력, 혹은 작가로서의 고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자한다. 특히 『팔월의 빛』에 나타난 제퍼슨 사회가 미셸 푸코가 말한 판옵티콘 메커니즘과 평행을 이루며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푸코는 인간 본성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시와 처벌의 담론을 문학 작품의 장으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부신화를 구성하는 감옥의 체계와 법체계를 초월하는 린치의 문제까지 한 사회가 저지르는 집단적인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고발은 작가로서의 그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고뇌의 산물인 점을 파악한다.

주제어 : 미셸 푸코, 윌리엄 포크너, 판옵티콘, 『팔월의 빛』, 제퍼슨 사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think the common theme that penetrates Faulkner's authorship. That is to say, does his authorship come from "being white"? To answer this question, I try to look into "otherness"/violence against others through re-reading *Light in August*. By borrowing the idea of "panopticon' mechanism in Michel Foucault's *Surveiller et Punir,* I will examine the process of justifying the violence against others, especially blacks. Through this process, I try to research the one side of Faulkner's Southern myth which was riddled with the history of pillage and violation of black people's rights. In *Light in August,* I will compare Jefferson society which encircles Joe Christmas to panopticon mechanism derived from Michel Foucault's *Surveiller et Punir*. Jefferson society as a designer of surveillance system and an executor as well ceaselessly surveils Joe Christmas's otherness/difference or blackness and tries to punish him whenever they can. With this mechanism, I try to explain that writer's repetitive narration of collective amoral behavior such as lynch comes from his anxiety and conscience about his dark side Southern history.

Key Words : Michel Foucault, William Faulkner, panopticon, *Light in August*, Jefferson socie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2017 Bisa Research Funds of Keimyu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k Jeong(hsjeong@kmu.ac.kr)
Received October 11, 2019 Revised November 8,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61년 저서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a l'age classique*)에서 유럽의 역사를 관통하는 광기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광기의 다른 말은 타자성으로서 모더니즘시대 이전 중세와 근대에는 이 타자성을 설명할 용어가 푸코에 의하면 광기(la folie)인 것이다. 푸코는 이 타자성을 통해 인간은 지배적인 이성의 작용 속에서 자신의 이웃을 감금하고 비광기(nonmadness)라는 냉혹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인지하고 교통한다고 말한다[1]. 중세 시대에는 타자성의 발현이 나병과 나환자에게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유럽 전역에서 나환자 수용소를 건립하고 수용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신념과 짝을 이루어 타자를 생산하고 분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중세 말엽 서유럽에서 나병이 사라지자 그들은 나병을 대신할 새로운 질병, 즉 공포의 대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즉 나병은 사라졌지만 이 비천한 장소들과 의식들은 남아있으며 수용소는 비워졌지만 나환자의 모습에 부여된 이미지와 가치는 더 오래 존속하며 그 구조는 여전히 남아서 가난한 부랑아, 범죄자, 그리고 '광인들'이 나환자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했을 따름이다. 푸코는 이러한 격리를 통해서 격리된 사람과 그들을 격리시킨 사람들을 위해 예상되었던 구원이 무엇이지를 연구하기 위해 문학과 철학에 나타난 광기의 역사와 형태를 논하고 있다. 나환자들이 수용되었던 수용소는 이제 정신병자들이 격리되어 수용되었고 인간은 오래된 분리와 격리의 주제에 따라 일종의 의례적인 분리를 실행했다. 『광기의 역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고대 문학에서부터 셰익스피어에 이르기까지 문학 작품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광기를 분석한 내용이다. 광기는 항상 죽음의 욕동 타나토스(Thanatos)와 짝을 이루며 작품의 전개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동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푸코는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1977년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에서 감옥의 역사를 연구하며 그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신체형을 주었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자 감옥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력의 행사를 유지하였으며 일망감시시설 즉 판옵티콘 메커니즘(panopticon mechanism)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소수의 간수가 다수의 죄인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때에 여러 가지 규율을 통해서 작동되는 권력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통제하고 공격한다.

푸코의 저서는 인간을 처벌하고 감금하는 권력에 대한 서술이자 권력의 역사와 권력에 대한 철학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감옥 체계」장에서 논한 억압, 거부, 배제, 소외화 등과 같은 제도의 개념은 다양한 '감옥' 장치들에 의해 예속화된 신체와 힘[2]의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836년 《재판신보》에서 "쇠사슬에 묶인 다수의 유랑족, 그 별스러운 인종, 도형장과 감옥을 가득 채울 특권이 있는 특별한 인종들"에 대한 욕설, 위협, 구타, 증오나 공감의 표시가 뒤죽박죽 섞인 꾸르띠유 거리의 모습을 전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감옥' 장치들을 매개로 권력의 반대쪽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거부, 억압, 소외화, 물리적인 감옥과 감시의 체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소외화와 배제, 거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작동되고 있다. 벤담(J. Bentham)의 1791년 원형교도소프로젝트는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그 프로젝트에 대한 폭력성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푸코는 이 구조를 인용하여 판옵티콘의 감시체계 원리가 권력의 눈으로서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규범 사회의 원리인 판옵티시즘(panopticism)으로까지 인식을 확장시켰다. 또한 이 메커니즘에는 물리적 감시뿐만 아니라 구조상 죄수에게 조명이 비춰지고 감시자에게는 반대로 조명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죄수는 오픈텍스트로 일방적인 시선의 대상이 된다. 죄수는 이제 완전히 객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있으며 감시자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 없으므로 감시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관계는 응시/시선(gaze)을 통한 권력의 행사로 권력의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며 최초의 건축학적인 감옥 설계의 장에서 권력 구조의 관계로 인식이 확장되어 문학 작품의 구조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필자는 푸코가 개진한 판옵티콘 메커니즘을 권력의 체계 인식에서부터 이동하여 문학 작품 안에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푸코의 저서에서 다룬 나환자-광인이라는 타자의 개념이 1세기 후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타자로 일컬어지는 흑인의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부 사회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일부인 흑인차별문제나 흑인 노동착취와 같은 명시적인 타자에 대한 폭력성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죄수/감시자의 구조에서 권력과 타자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20세기 미국 남부 출신의 작가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문학 세계에는 언제나 타자성이 주요한 문제가 되며, 작가가 속한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주민, 흑인, 여성 등의 타자에 대한 집단적 비도덕적인 행위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포크너의 작품 속의 여성은 목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언어는 파편화되고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주민의 경우 그들의 땅이었던 대륙에 침범한 백인들이 원주민의 땅을 사고 파는 근본적인 계약의 무효성과 비양심적 행위에 대한 작가의 탐색 과정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 원주민은 타자가 되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흑인 인종 문제는 백인 농장주와 흑인 노예의 구조에서 타자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포크너 작품 가운데 단편 「불과 화로」(*The Fire and Hearth*)의 주인공이 겪는 한 에피소드는 백인과 흑인의 차이 즉 백인이 아님을 깨닫는 사건을 통해 '백인임'과 '백인이 아님'의 차이가 타자성을 보여주는 섬세한 장치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팔월의 빛』(*Light in August*) 역시 흑인=타자라는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는 관계를 보여준다. 주인공 조우 크리스머스(Joe Christmas)와 제퍼슨 사회의 관계는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자의 관계로 또는 푸코의 이론처럼 죄수와 감시자의 관계로 치환하여 볼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이 흥미로운 점은 이 사회의 타자인 크리스머스가 흑인이라는 공식을 깨는 가장 중요한 설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작가 자신이 크리스머스의 비극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이다"[3]라고 밝힌 것처럼 그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 끝까지 모호성을 견지한 점이 그의 비극, 나아가 작품의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이 점에 대해 가멜(I. Gammel)은 포크너 원고연구를 하는 페디먼(Fadiman)의 저서를 인용하며 작가가 집필 중 크리스머스의 흑인 혈통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인용했다. 특히 논문의 제목을 "그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Because He is Watching Me)[4]로 정하면서 크리스머스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주체를 제퍼슨 사회를 넘어서는 대문자 그(He)로 표현한다. 이때의 그는 대타자인 이름으로서의 아버지에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이를 통해 필자는 이 작품의 주제와 틀을 크리스머스와 그를 감시하고 응시하는 관찰자의 관계로 설정하고 그 관계를 푸코의 이론을 차용하여 살펴보고자한다. 흑인의 피가 섞여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과 의심을 받는 조우 크리스머스에 대한 제퍼슨 주민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경계와 크리스머스를 향한 광기는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폭력의 원인이 되는 크리스머스의 흑인혈통은 불분명하지 않은 모호성으로 인해 더욱 폭력적으로 비춰지며 이 모호성과 불분명한 경계성으로 인해 타자성의 타자성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압살롬, 압살롬!』과 『모세여 내려가라』와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흑인에 대한 인권 유린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퍼슨 사회는 하나의 판옵티콘과 같은 감시체계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흑인(혹은 흑인으로 여겨지는) 크리스머스의 이질성과 흑인성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하는데 처벌의 한 형태로 포크너 작품에는 유독 감옥이 자주 등장한다.『성역: 오리지널 텍스트』(*Sanctuary: The Original Text*)의 첫 장면에서는 주인공 호러스 벤보우(Horace Benbow)가 억울하게 살인죄의 누명을 쓴 리 굿윈(Lee Goodwin)이 갇혀있는 감옥 옆을 지나간다. 또한 『어느 수녀를 위한 진혼곡』(*Requiem for a Nun*)의 마지막 막(Act)인 "감옥"(The Jail)의 프롤로그에도 초기 감옥이 건축되는 과정과,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치커소 원주민들을 추방한 과정, 남북전쟁 당시 어린 지원병을 모집한 이야기, 창문틀에 반지를 긁어서 새겨놓은 한 소녀의 이름을 담고 있는데 "*낯선 이여, 들어보시오. 이것은 나 자신이었고 이것은 나였소*"[5]라는 마지막 말은 감옥의 역사를 다루면서 인간 역사의 보편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푸코가 인간 본성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시와 처벌의 담론을 문학 작품의 장으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통해 본 포크너의 작품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2. 조우 크리스머스와 제퍼슨 사회

포크너의 작품은 크게 요크나파토파 카운티(Yoknapatawpa County)의 주요 6개 가문의 이야

기를 축으로 전개되는데 초기 주요 작품 가운데서도 『팔월의 빛』은 아주 예외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고함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와 『내 죽으며 누워있을 때』(*As I Lay Dying*)에서 시도한 실험적인 서사의 기법을 잠시 중단하고 리나 그로브(Lena Grove), 하이타워(Hightower) 목사, 크리스머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주플롯으로 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작가는 처음에는 이 작품에서 실패한 목사 게일 하이타워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하이타워 목사와 그의 현재의 삶의 원인을 제공한 부친과 조부의 이야기를 주제로 '어두운 집'(Dark House)을 구상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리나 그로브를 등장시키면서 제목도 『팔월의 빛』으로 바꾸고 플롯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 후 크리스머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이 완성된 것이다. 8개월에 걸친 글쓰기에서 조우 크리스머스와 조애너 버든(Joanna Burden)의 관계와 크리스머스를 살해하는 퍼시 그림(Percy Grimm)으로 대변되는 제퍼슨 주민이라는 군중을 다룰 때 작가는 그 이전 작품에서보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 같다. 그리고 세 갈래 이야기의 플롯에서 크리스머스의 이야기를 나중에 첨가하면서 이 작품은 훨씬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한편 포크너가 다루는 인물 가운데 흑인은 선험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인종에 속하는지 알지만 조우 크리스머스는 그렇지 않다. 그 점이 바로 조우 크리스머스를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만드는 요소이다. 크리스머스는 자신을 흑인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는 백인처럼 보이고 어쩌면 전혀 흑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를 흑인으로 규정지은 것은 출생 때 이미 아버지가 흑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흑인으로 정해졌다. 이런 점 때문에 『팔월의 빛』은 크리스머스의 정체성의 문제 혹은 인종주의 문제로 다루어져왔다[6]. 그러나 필자는 이 점에서 좀 더 나아가 인종주의를 넘어서는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제퍼슨 사회가 하나의 심리적인 판옵티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포크너의 전 작품에는 인종차별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크리스머스와 조애너 버든의 관계는 크리스머스와 제퍼슨사회의 관계와는 또 다른 성과 권력의 갈등이라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내포되어 있어서 이 오래된 갈등의 역사는 과거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퍼슨 사회는 하나의 판옵티콘과 같은 감시체계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흑인(혹은 흑인으로 여겨지는) 조우 크리스머스의 이질성과 흑인성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로 지칭되는 제퍼슨 주민이다. 제3자의 시점으로 제퍼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고 감시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하이타워 목사와 조애너 버든과 크리스머스 관계를 설명하고 리나 그로브와 루카스 버치(Lucas Burch), 바이런(Byron)의 관계, 그리고 퍼시 그림이 크리스머스를 거세하고 살해한 사건까지 소설은 '우리'라고 일컫는 제퍼슨 주민의 감시와 관찰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우리'의 개념은 작가의 다른 작품, 특히 『내 죽으며 누워있을 때』의 내레이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내 죽으며 누워있을 때』에서는 번드런가의 화자와 비번드런가의 화자들의 독백과 관찰과 내레이션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독자를 주인공인 다알의 내면세계에 가두어놓는 효과를 상쇄시킨[7]반면 『팔월의 빛』에서는 내레이션의 주체가 '우리'라는 강력한 연대를 가진 제퍼슨 마을의 주민들이며 타자에 대한 관찰, 감시의 권력이동과 관찰의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크리스머스의 삶은 그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선에서 보면 하나의 텍스트가 되어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제퍼슨 주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판옵티콘 메커니즘에서 죄수의 움직임은 관찰되고 감시자의 움직임은 노출되지 않는 구조와 다를 바 없다. 크리스머스가 자신에 대한 감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픈 텍스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음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크리스머스는 출생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제퍼슨의 '우리'의 한사람인 유퍼스 하인즈(Eupheus Hines)의 감시의 눈에 둘러싸여있다. 크리스머스의 어머니 밀리(Milly)가 멕시코사람, 나중에는 서커스단장이 그가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전하는 말 이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의 아버지 하인즈는 딸과 연애를 하는 멕시코인을 추적하여 총을 쏘아 살해한다.

He[Eupheus]found them like he had known all the time just where they would be, like him and the man that his gal told him was a Mexican had made a date to meet there. It was like he knew. It was pitch dark, and

even when he caught up with a buggy, there wasn't any way he could have told it was the one he wanted. but he rode right up behind the buggy... Grabbed him by one hand and held the pistol against him with the other and shot him dead and brought the gal back home behind him on the horse. He left the buggy and the man both there in the road[8].

노인은 딸아이가 자신에게 멕시코 사람이라고 알려준 남자와 만날 곳을 알았던거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노인이 마차를 따라잡기 시작한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답니다. 따라서 자신이 따라잡은 마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군요. 하지만 그는 마차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던 모양입니다. ... 그는 한 손으로는 그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를 향해 권총을 쏘아 그 낯선 가람을 죽인 다음, 딸아이를 말 뒤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결국 그는 낯 선 남자와 마차를 길에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던 겁니다. .

이 장면과 곧 이어지는 밀리의 임신과 출산은 소설 전체 21장 가운데 16장에 해당된다. 1장이 리나 그로브의 제퍼슨 도착을 다루고 21장이 모든 사건과 크리스머스를 둘러싼 비극이 끝난 후 리나와 바이런(Byron)이 제퍼슨을 떠나는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크리스머스의 출생이 16장에 다루어진 것은 첫 장과 마지막 장처럼 전체가 제퍼슨 사회의 눈과 감시로 둘러싸여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장에서 리나 그로브가 만삭의 몸으로 제퍼슨에 도착하는 모습은 리나의 독백이 있은 후 제퍼슨 주민인 암스티드(Armstid)와 윈터바텀(Winterbottom)의 관찰로 한 번 더 반복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전체 배경은 제퍼슨으로 시작해서 제퍼슨으로 끝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회에서 하이타워 목사나 크리스머스, 조애너 버든은 이방인으로서 전통적인 제퍼슨 사회에 이질적인 인물들이며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관찰하는 시선이 있으며 의심의 눈초리들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는 주 플롯에 함께 따라가는 제퍼슨 주민들의 코멘트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의심하며 이방인으로 정해버린 인물들은 결국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9].

크리스머스의 외조부가 멕시코인인지 흑인인지 분명치 않은 밀리의 연인을 살해한 후 밀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낙태수술을 해 줄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딸의 해산일을 기다린다. 해산일이 다가오자 하인즈는 아이가 신의 저주이며 분노라고 단정 짓고 난산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 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실제로 출산 후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밀리가 죽자 하인즈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고 믿는다. 그리고는 부인 몰래 외손자 크리스머스를 데려간다. 그 때부터 30년 동안 외조모는 크리스머스의 행방에 대해서나 생사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하인즈는 밀리의 부정한 행위가 신의 심판을 받아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그 아들 크리스머스 역시 신의 저주로 태어난 아이라고 결정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두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고아원의 수위로 일하면서 크리스머스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끊임없이 아이가 흑인임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머스는 흑인임을 강조함으로써 크리스머스는 외조부로부터 인종에 대한 정체성이 강요된다. 크리스머스의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관찰자들의 눈에조차 흑인인지 백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는 점이 바로 비극의 핵심인 것이다. 이점에 대해 아다모브스키(T. H. Adamowski)는 "조우 크리스머스는 다른 사람에 의해 디자인된 타자"[10]라고 언급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푸코의 저서에서 언급된 그 사회의 이방인 혹은 제거되어야할 이질적인 집단을 광인으로 몰아버린 나환자수용의 역사를 이어받은 집단적 광기가 재현되고 있음을 본다. 하인즈의 경우 한 명의 감시와 관찰자의 역할로 국한되지만 크리스머스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감시와 관찰의 눈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외조부인 하인즈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확대되어 퍼시 그림이 상징하는 제퍼슨 사회 전체로 이어진다. 이 확장의 구조에서 이방인으로 낙인찍힌 크리스머스의 실제의 모습 즉 실제로 흑인인지 백인인지 확실치 않은 인종의 정체성은 푸코가 간파한 그의 시대의 실제 광인이 아닌 사회의 이방인에 대한 낙인찍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푸코가 다룬 감시와 처벌의 역사는 프랑스 사회를 넘어서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의 부랑인, 걸인, 이방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 처벌로 이어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관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필자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남부 작가의 작품에서 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선과 심리적 기제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에 대한 혐오감이 맹목적 신앙과 결합되어 신의 분노와 신의 응징만을 강조하는 하인즈의 행동 패턴은 크리스머스의 양부인 맥이천(McEarchern)의 모습에서 재현된다. 딸 밀리가 서커스단원과 몰래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살해하는 폭력의 행위는 청년이 된 크리스머스가 댄스파티에서 웨이트리스를 만나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양부 맥이천의 추격에서 반복이 된다.

맥이천은 크리스머스와 같은 속력으로 자신이 찾아낸 장소로 곧장 말을 몰았다. 그곳은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그가 밤새 거의 군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지역을 뒤져 마침내 찾아낸 곳이다.

He[McEarchern] rode at that same speed straight to the place which he sought and which he had found out of a whole night and almost a whole half of a county, though it was not that far distant.(*LA* 153)

이 작품에서 추격하는 장면은 세 번 묘사되는데 추격자들은 각각 다르지만 말을 타고 총을 들고 크리스머스의 어머니, 양아들 크리스머스 그리고 백인 여성을 살해한 살인자 크리스머스를 추격하는 장면이다. 이 구조가 모두 토끼몰이를 하는 즉 사냥감을 사냥하는 사냥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패턴은 푸코가 언급한 사회에서 광인으로 내몰기, 광인을 사회와 격리시킨 역사가 보여주는 처벌의 대상에 대한 폭력으로 읽혀진다.

양모에게서 돈을 훔쳐 집을 떠난 크리스머스는 여러 곳을 방황한 후 30세가 된 즈음에 제퍼슨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 제퍼슨 사회와 동떨어져서 흑인교화사업이라는 부친의 유언을 실행하고 있는 백인 여성 조애너 버든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오두막집에 살면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신분석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크리스머스라는 인물에 대한 제퍼슨 사회의 감시와 시선을 주로 다루므로 크리스머스-조애너 관계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자한다. 흑인의 교육과 교화라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실행하고자 조애너는 흑인 크리스머스에게 교육을 강요한다. 조애너는 계속 크리스머스에게 대학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라는 제안을 하는 한편 억눌렸던 성적 욕망의 분출과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요구하지만 크리스머스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신이 얻고자했던 자유를 한순간 덫에 걸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임신을 했다는 말로 크리스머스를 붙잡고 싶었던 조애너는 결국 권총으로 크리스머스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을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크리스머스에게 면도칼로 살해당한다. 조애너가 살해당하고 오두막에 불이나자 5분 만에 그 소식이 제퍼슨 마을에 퍼져 사람들이 몰려온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조애너의 시신을 보면서 살인뿐만 아니라 강간까지도 상상을 한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흑인이 저지른 범죄로, 한 명의 흑인이 아닌 흑인종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그녀가 능욕도 당했다고, 그것도 목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적어도 한 차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어도 한 차례 능욕을 당했다고 믿었으며, 또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었다...몇몇은 벌써 주머니에 권총을 넣은 채 범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다.

they believed aloud that it was an anonymous negro crime committed not by a negro but by Negro and who knew, believed, and hoped that she had been ravished to: at least once before her throat was cut and at least once afterward...and some of them with pistols already in pockets began to canvass about for someone to crucify. (*LA* 216-17)

제퍼슨 주민들은 이 사건이 한 명의 흑인(a negro)이 아니라 집단적인 흑인 인종(Negro)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살해 전후 백인 여성에 대한 능욕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그 누구라고 특정할 것도 없이 주민들은 주머니에 권총을 넣은 채 범인을 잡기 위해 수색을 시작한다. 범인이 이미 흑인이라고 상정을 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 이상으로 범인을 잡아서 그를 처벌하는 과정에 보안관과 조수와 민병대원인 퍼시 그림이 합세한다. 이들 한 명 한 명이 제퍼슨 사회를 구성하며 이러한 린치의 위협을 가하는 군중들의 행위에 대해 어빙 하우(Irving Howe)는 작가가 백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좌절감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11]. 즉 사디스트 청년 한 명을 통해 인종적으로 불평등의 사회는 결국 지위의 남용과 임의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작가의 고통스러운 지각을 정형화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푸코가 말한 감시와 처벌의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흑인이라는 이방인, 이질적인 인물, 광인으로 낙인찍은 이들에 대한 처벌의 행동에 진입한다. 이 사건에 책임을 맡은 보안관은 불길이 타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원 세상에, 만약 저 검둥이 놈이 범인이라면 우린 여기 서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저런 검둥이 새끼가 백인 여자를 죽였는데*...(*LA* 219) 라는 원한에 사무치는 소리를 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안관이 근처의 흑인에게 크리스머스가 살던 오두막에 누가 살았는지를 물었을 때 백인 두 명이라는 대답을 했지만 이미 보안관을 비롯한 제퍼슨 주민들은 그 중 범인이 당연히 흑인일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리고는 조애너 버든의 조카가 내건 1,000달러의 현상금과 함께 경찰 수색견 두 마리를 풀어 크리스머스 체포 작전에 돌입한다. 앞서 하인즈와 맥이천의 추격 작전처럼 크리스머스는 경찰견과 민병대에 추격당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앞선 두 번의 추격전은 마지막 추격전의 전조와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며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추격당하는 크리스머스와 추격하는 제퍼슨 사람은 적이 되어버린다. 웬디 브라운(Wendy Brown)에 의하면 "적이란, 그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은 적 없는 사람"[12] 인데 개인적 이야기들은 자기 서사를 통해 의미있는 삶의 경험을 얻게 해주고 풍부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주체임을 말해 주는데 자신의 서사가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까지 크리스머스의 인종문제가 불분명하게 이어져오고 있는 점이 작품의 긴장감과 폭력성이 배가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는 사회에 의해 낙인찍히고, 타인에 의해 정의되고, 억압받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왜곡되기까지 한다. 크리스머스는 3년 동안이나 제퍼슨마을에 살았지만 사람들과 소통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누구도 그에게 서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이야기를 나눈 조애너 버든과의 관계가 비극적인 살인으로 끝이 났을 때 크리스머스에게는 처벌만이 남겨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퍼시 그림이 등장하는데 그는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20세가 넘어서 그 사실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군복과 계급장에 대한 열망이 지나친 청년이다. 그는 "백인종이 어떤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고, 미국인이 어떤 백인종들보다 우월하며, 군복을 입은 미국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는 이런 신념과, 이런 특권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자신의 삶이라고 믿었다."(*LA* 339) 이처럼 흑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확정적인 인물에게 제퍼슨의 치안 권력이 주어진다. 재향군인회 회장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키겠다"(*LA* 341)는 그림의 요청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은 들먹이지 말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질서와 정의를 지키라고 한다.

그림은 평생 동안 꿈꾸어 온 정의와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제퍼슨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처벌의 실행자가 된다. 작가는 그림을 조정자(player)로 이름 붙인다. 이제 그는 시골마을의 미미한 청년에서 장기판의 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조정가가 된 것이다. 그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한 것은, 즉 그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은 그 사회의 이단자, 이방인을 감시하고 추방하고 처벌하고자하는 집단적인 권력인 것이다. 손에 총을 들고 하이타워 목사의 집에 숨어있는 크리스머스를 추격하는 그림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이타워 목사의 부엌에 숨어 있는 크리스머스에게 권총을 다섯 발 쏜 다음 그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크리스머스에게 한 행위는 폭력 그 자체이다.

그러나 조종자는 그것으로 끝을 내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부엌에 가보니 식탁은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그림은 시체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그에게 접근했을 때에 그들은 크리스머스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림이 하고 있는 일을 보는 순간 그들 중 한 사람은 목이 멘 부르짖음을 쏟아놓고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더니 그만 토해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림도 피투성이가 된 칼을 뒤로 던지더니 물러서고 말았다. "자식, 이쯤 되면 지옥에 가서도 백인 여자한테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겠지"하고 그는 말했다.

But the Player was not done yet. When the others reached the kitchen they saw the table flung aside now and Grimm stooping over the body. When they approached to see what he was about, they saw that the man was not dead yet, and when they saw what Grimm was doing one of the men gave a choked cry and stumbled back into the wall and began to vomit. Then Grimm too sprang back, flinging behind him the bloody butcher knife. 'Now you'll let white women alone, even in hell,' he said.(*LA* 349)

아직 살아있는 크리스머스에게 그림이 칼로 거세를 시키는 장면은 그 자체도 구토를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

적인 것이지만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남긴다. “사람들은 검붉은 피를 쏟아내며 죽어간 크리스머스를 잊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평화로운 계곡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낸다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응시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그 오래된 불행한 사건과 더욱 새로운 희망을 비춰보면서 그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LA* 349)라는 19장 마지막 부분은 결코 퇴색되지 않을 기억에 대해 말하고 있다.

포크너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역사성, 과거의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크리스머스 살해 사건의 기억은 제퍼슨 주민들의 기억에는 언제나 그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점이다. 필자도 여러 논문에서 이 과거의 현재성을 다룬 바와 같이 작가가 미국 남부의 백인 작가로서 느끼고 있는 백인임(whiteness)의 기저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가가 『고함과 분노』, 『압살롬, 압살롬!』, 『내 죽으며 누워 있을 때』와 같은 초기 작품들에서 내레이션과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 실험적인 서사기법을 작품에 시도할 무렵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팔월의 빛』은 오히려 작가의 근본적인 고뇌와 고민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다.

크리스머스가 조애너 버든을 면도칼로 살해한 사건은 실제 포크너가 살았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패튼(Paten)이라는 흑인이 매티 맥밀런(Matty McMillan)이라는 백인 여성을 살해하고 체포되자 그 마을의 2천명이나 되는 주민이 몰려와 재판도 받기 전에 패트에게 린치를 가하고 머리 가죽을 벗긴 후 시체를 자동차에 매달아 마을을 돌아다닌 후 다시 법원 앞 나무에 매단 사건이다[13]. 작가가 어렸을 때 접한 사건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는 재판을 받기 전 군중들이 범인에 대해 가한 사형(lynch)의 문제를 거듭 작품에 묘사하고 있다. 『팔월의 빛』 뿐만 아니라 『성역』(*Sanctuary*)과 『어느 수녀를 위한 진혼곡』에서도 군중들이 저지르는 린치의 폭력성과 비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폭력은 푸코가 연구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며 20세가 미국 남부 사회에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며 인간 본연의 폭력성과 악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작가는 법의 실행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군중들의 집단 처벌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논문 서두에 밝힌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결론

20세기 모더니즘의 정신을 구현하며 동시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인간의 깊은 내면의 욕망과 무의식을 다룬 포크너는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폭력과 선정성의 작가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도 인간의 본질 혹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 특징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이 폭력성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주장한[14] 모든 문화의 근저에 자리 잡은 집단구성원의 만장일치의 폭력성으로서 신화에서 시작하여 문화인류학을 거쳐 사회의 메커니즘과 문학의 주제로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라르가 해석한 박해와 살해라는 폭력성은 푸코에게서는 광기로 해석되며 광기는 이성보다 행복과 진리에 가깝다는 푸코의 주장이 포크너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본질을 잘 설명해준다.

개인 대 집단의 대결 혹은 갈등 구조에서 나아가 또한 흥미로운 점은 중세 유럽 역사에서 보듯이 게르만 민족 신들을 정복한 기독교 문화의 자리매김이나 미국 남북 전쟁 후 전통적인 남부의 농업중심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북부의 공업화 바람처럼 기존의 문화가 나중에 들어오는 문화에 섞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문화와 구문화의 대결 혹은 기존 질서와 이방인이 가져올 지도 모르는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에는 권력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로 대변되는 미국 남부의 제퍼슨 사회는 백인 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캘빈주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신교윤리로 뭉쳐져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이질적인 침입자의 존재는 위협적이며 격리시켜야하고 추방해야할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분리하기와 선긋기, 광인으로 몰아가기의 메커니즘에 작동되는 원리를 더 강화한 것은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의 뿌리라고 여긴 극단적인 캘비니즘이며 퍼시 그림을 통해 드러나는 인종 우월주의이다. 유럽 중세에 악으로 분류되었던 광기는 이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있는 동물적 본성의 출현이며 이것이 작동하여 이방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이해에 남부 작가의 작품을 덧붙였을 때에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 본성의 기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포크너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감옥의 체계와 법체계를 초월하는 린치의 문제까지 한 사회가 저지르는 집단적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고발은 작가로서의 그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고뇌의 산물이다. 윌리엄 포크너의 전체 작품 세계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를 위해 필자는 흑인문제, 여성문제, 정신분석학적 접근, 성서적 접근 등 지금까지의 연구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포크너 작품의 중심이 바로 "백인임"[15]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야말로 백인 작가인 포크너가 흑인을 보는 관점, 원주민을 대하는 관점, 여성, 가난한 시골 백인(rednecks)과의 관계 등을 재설정하는 "핀"과 같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발점에서 본 연구는 남부신화로 대변되는 작가의 작품세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 시도의 일환으로 제퍼슨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남부 사회가 타자에 대해 가지는 경계와 관찰, 폭력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이 폭력의 기원은 푸코의 두 저서에서 다룬 광기의 역사와 판옵티콘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학적 담론에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타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의 구조적 폭력성을 통해 역사에 점철된 과거의 현재성이라는 보편성을 살펴보게 되었다.

REFERENCES

[1] M. Foucault. (1999) *Histoire de la folie a l'age classique.* Trans. B. Y. Kim. Seoul: Ingansarang..

[2] M. Foucault. (2000) *Surveiller et Punir.,* Trans. S. K. Oh. Seoul: Nanam Publishing.

[3] F. L. Gwynn & J. L. Blotner eds. (1977).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7~1958.* Charlottsville: UP of Virginia.

[4] I. Gammel. (1989) Because He is Watching Me: Spectatorship & Power in Faulkner's *Light in August. The Faulkner Journal, 5(1),* 11-23.

[5] W. Faulkner. (1981). *Requiem for a Nun.* Hammondsworth: Penguin Books Limited Company.

[6] J. Kovel. (1988). *White Racism: A psychohistory.*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7] H. S. Jeong. (2019). William Faulkner's *Sanctuary: The Original Text* as a matrix.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8),* 233-242.

[8] W. Faulkner. (1980). *Light in Augus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9] O. Vickery. (1964). *The Novels of William Faulkner: A Critical Interpretati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0] T. H. Adamowski. (1971) Joe Christmas: The Tyranny of Childhood. *Novel, 4,* 240-51.

[11] I. Howe. (1983). Faulkner and the Negroes in *Faulkner: New Perspectives.* Ed. R. Brodhea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2] W. Brown. (2006).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Princeton: UP of Princeton.

[13] J. Cullen & F. Watkins. (1961). *Old Times in Faulkner Country.* Chapel Hill: UP of North Carolina.

[14] R. Girard. (2004). *Je vois Satan tomber comme l'éclair.* Trans. J. S. Kim. Seoul: Munjisa.

[15] J. Watson ed. (2011). *Faulkner and Whiteness.* Jackson: UP of Mississippi.

정 현 숙(Hyunsook Jeong) [정회원]

· 1980년 2월 :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문학사)
· 1986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1994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
· 관심분야 : 현대영미소설, 정신분석학적 비평, 비주얼 미디어와 문학
· E-Mail: hsjeong@kmu.ac.kr